

메타 프로젝트 추진 착착

순창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조성... 완성시 700만 관광객 방문 기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순-담(순창-담양)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순-담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는 전라도 1000년을 맞아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 합을 모아 시작하는 첫 사업으로, 도간 경계를 넘어 관광교류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43억여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확장과 고추장민속마을 및 담양을 학동리 인근에 투어스테이션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완성되면 연간 700만의 관광객이 순창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도 24호선 확장공사가 올해 말 완공되면, 인근 대도시에서 순창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순창 향교와 신말주 선생 후손 세거지, 귀래정 등 순창 문화유적과 담양의 관광제일, 향교, 죽향문화체험마을 등의 문화유적지를 결합해 1박2일이나 당일 투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순-담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다. 또한 순창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어, 인문학 투어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현재 순창군은 관광객 500만 달성을 목표로 투자선

도지구 지정, 메타세쿼이아 프로젝트,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10년 이내 순창군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임실치즈테마파크 국화 만개 관광객 발길 이어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천만송이 국화꽃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끝나지 않은 축제'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9일 치즈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평일과 주말을 이용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이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아 국화꽃 향연을 즐기고 있다.

15일 임실군에 따르면 성공적인 임실치즈축제를 견인한 임실치즈테마파크 국화꽃이 만개해 있는 가운데 축제이후인 10일부터 주말까지 3~4만여명의 관광객이 추가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 유럽풍의 임실치즈테마파크 고유전경, 전국체전 등 효과에서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심 민 군수는 "임실치즈축제가 끝났는데도, 입소문을 타고 천만송이가 넘는 국화꽃들을 보기 위해 연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서 흐뭇하다"며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보기 위해 방문한 선수와 관람객들에게도 아름다운 임실의 이미지를 많이들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국화재배로 식물치유... 농가소득 향상

"국화를 재배하는 과정이 그리 순탄치 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막상 국화꽃이 활짝핀 걸 보니 마음도 기쁘고, 농사소득도 올릴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아잠마다 국화밭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던 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 김미옥 회장의 말이다. 올해 시업적으

로 도입한 국화 위탁재배 사업에 대한 재배농가들의 반응이 뜨겁다. 순창장류축제 경관용으로 사용할 국화 5,000본을 생활개선연합회에서 위탁재배하게 된 것.

생활개선순창군연합회는 올 여름 재배과정에서 국화들이 생리 장애로

몸살을 앓았지만, 군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로 국화가 만발하는 결실을 맺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화 위탁재배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후 2019년에는 확대보급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올해 흥부가족으로 선정된 남원시 인월면 김지수씨 가족.

남원 흥부제전위원회, 흥부가족상 선정

남원 흥부제전위원회에서는 '우애, 나눔, 보은, 행운'의 흥부정신을 계승하고 이웃들과 더불어 사랑과 우애로 화목하게 살고 있는 가정을 선정해 오는 19일 개최되는 흥부제 기념식에서 흥부가족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올해 흥부가족으로 선정된 가정은 남원시 인월면 내건마을에 거주하는 김지수(54)씨 가족으로, 부인과 함께 4자녀를 키우고 또한 홀로된 고령의 어머니를 지극 정

성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시대 신(新)흥부 가족이다.

김 씨 가정은 넉넉지 못한 경제 상황에서도 부부금실이 좋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지극정성 모시며 인월면 내에서 효행심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끈끈한 가족애와 지원을 바탕으로 차녀 김옥희 양은 2014년 대통령기 전국 싸이클대회에서 우수상을, 문화관광부장관기 금메달을 수상하며 지역인재로 성장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수렵장 개설 운영

남원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수렵장 설정 면적은 시 전체면적의 약 45%정도이며, 야생동물보호구역, 도시구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공원구역과 농촌지역 주택가 등 수렵금지지역을 제외한 335ha를 설정 운영한다.

이 기간 남원에서 수렵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17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에 고시된 내용에 의거 포획승인권(적색승인권, 청색승인권)별로 지정통장에 입급 후 신청해야 한다.

포획 승인권은 740명으로 입급 순차에 따라 승인권을 발급할 예정이며, 수렵대상 유해동물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꿩, 멧비둘기, 참새, 어치, 청설모 등 유해 조수로서 포획승인 후 확인표지(Tag)를 부착 신고해야 한다.

남원시는 수렵장 운영으로 시민들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며, 시민들은 수렵기간 가급적 입산을 자제하고 수렵장 개설구역 내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해 이 기간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보건소 영화상영

경로당 방문 치매극복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현대인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치매를 영화로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마을영화관이 지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이다.

남원시보건소는 마을 영화관을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달 여 동안 지역사회 중심 치매인식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치매극복 마을영화관을 운영하였 으며, 운영에는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참여해 금지면 11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 지역주민들에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편견을 해소했다.

센터는 보건소장을 센터장으로하고 전문인력을 추가로 확보해 상담등록관리 팀, 조기검진팀, 쉼터팀, 가족지원팀, 인식개선홍보팀 등 5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한다.

남원시 보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임시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치매 전문인력 6명을 배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사선대 생태공원 환경부 생태공감마당 성황리

3개조 나눠 생태체험

임실군 사선대 생태공원에서 열린 2018 생태공감마당(Eco-dive)이 전국 생태체험가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국립생태원에서 주관하는 2018 생태공감마당은 생태전문가와 국민이 함께하는 생물다양성 및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생태체험은 3개조 9개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다. 지형과 수생식물, 산림식

생, 조류, 포유류, 양성, 파충류, 곤충,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어류 등이다.

행사는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체험부스 체험,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체험, 생태음악회 및 생태토크 콘서트, 야간곤충 생태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진행됐다.

환영사에 나선 박진두 부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중요성이 확산되어, 자연보전 의식과 생명사랑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